

# “자기색’과 ‘끈기’는 창업 성공 위한 기본기”

## ★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2〉전경민 웰빙 디저트 카페 ‘달달한온도’ 대표

“청년 지원금은 사업 초기에 큰 도움이 되지만 결국 특색 있는 사업을 끈기 있게 해나갈 때 진정한 청년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경민(88·사진) 웰빙 디저트 카페 ‘달달한온도’ 대표는 청년창업의 성공 비법을 이같이 강조했다.

전 대표는 광주시 청년으로서 2019년부터 달달한온도를 운영해 온 6년 차 사업가다.

광주 자연과학고 식품과학과를 졸업 후 우리밀과 유기농 재료를 취급하는

식품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한 그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기술 위에 원재료인 밀가루와 달걀 등 제과 제빵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더해져 자 창업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

2019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전대표는 창업한 지 두 달 만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불운을 맞았으나 오히려 코로나를 기회로 삼고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과 배달 앱(APP)을 적극 활용, 어려움을 이겨내고 빠르게 성장했다.

달달한온도만의 특색을 묻는 질문에

제과 제빵 특성화고 졸업 후 식품회사 취업...기본기 ‘탄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블로그 마케팅으로 매출 600% ↑  
재능기부 청년사업가육성 취약계층고용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전대표는 “광주 전남 지역 농가에서 직접 공수해 온 쌀, 복숭아, 블루베리, 계란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시그니처 상품인 마들렌, 머랭, 쿠키는 매일 새벽까지 100%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전 대표는 창업 이후 잠까지 줄여가며 열정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답하듯 달달한온도는 2019년 대비 지난해 수익률 600% 증가라는 비약적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1억원 이상, 지난해에는 2억여원의 수

익을 달성했다.

청년 사업가로서 역대 연봉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전 대표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열심이다.

매달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한부모 가정과 취약계층에 간식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웨디이클래스를 무료로 운영, 예비 청년 사업가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교인 광주자연과학고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제과 제빵 기술을 가진 지적 장애인 학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서 소상공인 요식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노후 교류와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배민프렌즈 6기’에 선정돼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그는 청년 사업가를 넘어서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 대표는 지난해까지 광주시민회관 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3월 남구 백운동으로 터전을 옮겼다. 지난



해 서구 품앗점에 이어 올해 광산구 월곡점까지 점포를 확장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전 대표는 “지난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며 “앞으로 지역 내 지점을 확장해 최초의 ‘프랜차이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빛이 1억5천만

원까지 늘어 회생 절차까지 밟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이 커 포기치 않고 도전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청년 사업가들의 요식업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지원금만 보고 자만의 특색과 아이디어를 살린 제품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커 충분한 검토 후에 창업 시장에 뛰어들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은슬기자

## 지역 4개 사업 ‘지방소멸대응 혁신과제’ 예비 선정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조성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고 우수 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AI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조성사업이, 전남에서는 곡성군의 K-곡성 브랜드 농

식품 개발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사업과 영광군의 지방소멸 대응 시군연계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영암군의 조선 산업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사업이 선정됐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공동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인구 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를 대상으로 지난 1월11일부터 2월16일까지 공모한 결과,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는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중기부는 묘목 기업에게 기술 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도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

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 인증 컨설팅과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2개 예비과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우대하며 최종 과제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슬기자



##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광주세무사회, 세정지원 모색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0일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12월 말 결산법인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결산 서류 공시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및 컨설팅 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양 광주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량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월 1일부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냉난방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